서울대학교 사범대학

同窓會報

第 143 號
2004年 1月 1日

發行人 辛 東 一
編輯人 俞 千 根

home page : www.snueaa.or.kr
E-mail : snueaa@kornet.net

110-070 서울 종로구 내수동 1 대성빌딩 702호 電話 : (02)720-8116 / 720-8120 FAX : (02)720-8117 銀行지로 : 7521964

□ 권두언 □

오고, 또 오는 내일을 밝게

羅 根 炯
인천광역시 교육감
본회 부회장

사람은 저마다의 생각이 있고 그 생각 대로 살아간다고 한다. 그러나 생각이 항상 같을 수는 없다. 무슨 영향을 받든 간에 어제와 오늘을 같은 생각을 갖고, 같은 가치를 부여하며 생활하지는 않는다.

만나는 사람, 주위 환경과 접촉하는 사물에 따라 마음도, 생각도 변해가며 살아간다. 세계적인 문호 아무개는 가장 중요한 시간은 현재,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만나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일이라고 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와 같은 중요한 현재의 것들이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오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영향을 주고, 어느 것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수 있다고 했다. 어느 기상 학자는 장기 예보는 불가능 하다고 했다. 나비의 한 번 날개짓이 세계의 기상을 변화 시킬 수 있다고 했다. (Butterfly Effect)

그것이 사실이라면 오늘 우리의 삶은 과거의 영향에 좌우되어 있고, 그것은 오래 전에 다녔던 학교에서 받은 영향이 지대할 것이다.

동문 여러분의 지금의 삶은 나이에 관계없이 젊은 분은 젊은 분대로, 나이 드신 분은 나이드신 분 대로 지난 우리의 학창 시절이 현재 삶을 연속시키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2003년을 보내는 지금, 지난 학창 시절의 꿈과 미래가 오늘이 있게 함을 생각하면서, 우리 동문은 모두가 선을 행하여 또 다른 영향으로 새해에는 우리 이웃이 밝아지기를 기대해본다.

(수학교육과 15회)

새해 인사드립니다.

우리 동문님들, 새해에는 크나큰 축복이 함께 하시고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04년 새해

서울大學校 師範大學 同窓會
會長 辛東一 외 任員 일동

수련대회 연수 내용 요약

후진국형의 교육에서 선진국형의 교육으로

- 한국 교육 발전의 과제 -

朴 性 洙
영지고등학교 교장

Ⅰ. 우리 교육의 반성

1. 낙오와 도약의 갈림길

우리나라는 지난 1990년대 중반에 1만불이라는 개인 소득의 시대를 시작하였다. 후퇴와 고통의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금 1만불 시대에 진입했다. 그러나 교육, 노조, 북핵 등의 문제로 국가의 성장 기반이 취약해지고 또 다시 붕괴와 후진의 반복을 거듭할 수 있다는 걱정이 있기도 하다. 많은 선진국들이 1만불 소득에서 2만불 소득에 이르는 기간이 3~8년 정도 불과했으나 우리나라는 그럴 수 있는 기반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못하다고들 한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과 같은 선진국 대열로 발전하여 국제 사회에서 지도적 역할을 하려면 현재와 같은 후진국형태의 교육을 새로운 형태의 구미 선진국형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2 후진국형의 교육 체제

우리 나라 사람들의 교육열은 대단히 높다. 학생들의 학습열은 무척 높아서 세계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나라로 꼽힌다. 교사들의 교수 의욕도 엄청나서 정규 수업시간 이외의 많은 정성과 시간을 들이면서 학생을 가르친다. 부모들은 큰 희생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교육비를 자녀 교육에 투입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으로 밀어닥치는 도전과 시련에 직면한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제대로 갖춘 학생을 자체적으로 길러내는 학교 교육을 못하고 있다. 더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하여 많은 학생이 외국으로 유학을 가고 있다. 선진국의 교육을 극히 부분적으로라도 실천해 보려고 대학들은 나름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는 국제사회에서 지도적 역량을 발휘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많은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Ⅱ. 우리 교육의 발전 방향

1. 선택의 자유와 개성의 존중

선진국형의 교육이 어떤 것이냐를 설명하는 것은 후진국형의 교육이 어떤 것이냐를 설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어렵다. 선진국이라도 나라마다 다르고 또 국가에 따라서는 같은 나라라고 하더라도 워낙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 모습을 이해한다는 것이 복잡하고 방대한 일이다. 실제로 선진국가는 거의 모두 독특한 나름대로의 교육체제를 갖고 있다. 그러나 다양성과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선진국형의 교육은 몇 가지 주요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첫째,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교 교육과정 등 교육 선택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둘째, 학생 개인은 물론이고 학교도 하나의 법적 인격체로서 독특한 개성을 지닐 것을 강력하게 기대하고 있으며 특이한 개성들까지도 존중받고 있다.

2 수월성의 추구

결국 우리 나라 교육이 선진국형으로 발전하고 선진국 가운데서도 앞서가는 교육을 하려면 국민 전체의 학력 수준을 높여 가는 것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빼어난 수많은 분야의 능력을 길러내는 교육을 할 수밖에 없다. 음악, 미술, 문학 등과 같은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예술가를 배출하고 정치, 경제, 교육 등의 분야에서 세계 정상의 지도자와 사상가를 배출하고 발명, 발견, 창안 등의 과학, 기술분야에서 세계의 정상을 지켜가려면 우리 나라의 교육은 수월성(excellence)을 추구하는 학교 교육을 해나갈 수밖에 없다.

수월성이라고 하면 흔히 뛰어난 소수의 천재나 영재의 문제라고 치부해 버리기 쉽다. 교육의 관점에서 보면 수월성의 교육은 모든 사람이 타고 난 여러 재능 가운데서 특별하게 선택한 분야에서 가능성의 최고 정점까지 능력을 개발해 내는 것을 가리킨다.

Ⅲ. 선진국형의 교육 체제

1. 교육평가제

전체적으로 보면 선진국에서 교육의 성과를 평가하는 원리나 절차는 학교에 따라서 교사에 따라서 교과에 따라서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 전국적 기준의 평가가 필요한 경우 표준화 검사나 분명한 기준을 근거로 한 평가 방법으로 이용한다. 표준화검사를 이용하면 지역, 시기 등에 관계없이 개인의

능력을 비교적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표준화 검사의 오랜 전통은 교육 전문가들의 지속적 노력으로 높은 신뢰를 세계적으로 받고 있다.

우리가 널리 알고 있는 미국의 여러 가지 검사가 대부분 표준화 검사이다. 표준화되지 않은 주관식의 긴 논문이나 글이라고 하더라도 합의된 평가기준으로 비교적 객관적으로 채점하는 원칙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 선진국의 공통된 특징이다.

2. 교과교육의 체제

교과서를 중심으로 교육을 하려면 교사가 설명을 하고 참고 도서를 더 볼 필요가 여전히 많기 때문에 주입식·설명식 수업을 크게 탈피하기 어렵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더 많은 수업 내지 과외 공보를 요구하게 된다. 우리 나라의 현행 교과서는 세 가지 큰 문제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첫째, 교사는 아무리 가르쳐도 가르쳐야 할 내용을 다 가르치지 못하였다는 잔재 느낌이 있다. 둘째, 학생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학교 수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게 된다. 셋째, 부모는 학교만 믿고 자녀 교육을 하다가는 낭패보기 쉽다는 불신감을 갖게된다.

3. 생활지도의 체제

우리 나라의 학교 교육에서 가장 낙후된 분야가 아마도 생활지도라고 하겠다. 과거의 훈육이 체벌과 처벌주의로 낙인받고 있으며 생활지도를 통한 건전한 인간교육은 아직도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카운슬링 제도는 아직도 미약한 수준이 있고 그것도 카운슬링이란 제도의 틀에 끼워 맞추는 것에 치우쳐 있다. 인성교육이 논의되고 시행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단편적이고 부분적인 것들이다.

4. 학교 행정의 체제

우리 나라의 학교 행정은 거의 규격화되다시피 된 행정의 일상적 업무에 치중되어 있다고 하겠다. 이와 달리 선진국형의 학교 행정은 교육 실천을 역동적으로 개혁해 나가기 위하여 필요한 힘을 북돋워 주는 것에 치중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전자가 통제나 관리가 중심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봉사나 힘 실어주기가 중추 기능이 된다할 수 있다.

그러나 선진국형의 학교 행정이 지니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자유와 자율의 폭이 대단히 크고 탄탄하다는 점이다. 학생이나 학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학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대단히 많이 주어져 있다. 학교의 선택만이 아니라 교육과정의 선택도 동일한 학교 내에서도 엄청나게 큰 기회가 다양하게 주어져 있다.

5. 학교 인격의 체제

학교는 하나의 법적 인격을 가진 주체이다. 학교는 개성을 가지고 있고 독특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다. 사립학교의 경우 설립 정신에 따라 목적, 내용, 방법이 제각각 다를 수 있다. 공립이나 국립이라고 하더라도 주민들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목적, 내용, 방법으로 학교를 각각 독특한 법적 인격의 주체로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다.

선진국의 학교를 보면 모두가 특이한 역사와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 어느 학교를 다녀도 당당하고 또한 떳떳하다. 부끄러워 이름을 숨겨야 할 학교란 찾아보기 어렵다. 개인이 자신의 삶을 개성과 고유한 특징으로 아름답게 가꾸는 것처럼 모든 학교가 자기 학교만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창조해나가고 있다.

학교마다 고유한 인격을 지니고 있음을 존중하게 될 때 학교는 그 만큼 교육의 힘을 더할 수 있다.

6. 교육 정책의 체제

우리 나라 사람들이 세계 여러 나라 국민 가운데 가장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면 아마도 수십 년 단위의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할 것 같다. 세계 최대의 영토를 가진 러시아, 세계 최대의 인구를 가진 중국, 아시아 최강의 경제력을 가진 일본의 틈에서 국방을 든든히 하고 이들의 무력 침공을 막아내려면 국방의 개념은 현재와 전혀 달라져야 할 것이다.

1인당 국민소득 5만불 시대를 꿈꾼다고 하면 교육 정책은 현재와 완전하게 달라져야 한다.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구체적 목적을 설정하여 우리 나라의 교육을 현재의 선진국보다 훨씬 앞서가는 교육을 하여야 되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분야별, 영역별, 교과별, 내용별로 어느 나라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교육의 실천 체제를 마련하여 꾸준하게 실천해 나가다 보면 그런 일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Ⅳ. 결 론

우리 교육 발전의 과제를 현실적 개념으로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정신병자나, 범죄자 등과 같이 사회의 고비용이 투입되는 각종 부적응 집단의 비율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학교의 효율적 학생지도 체제를 마련한다.

둘째, 학교 중도 탈락, 이혼, 실업 등 사회의 생산력 감소 요인을 최소화하고 모든 국민의 전체적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생산적 학교 교육 체제를 마련한다.

셋째, 창조적 소수라고 불리던 과거의 소수 엘리트 교육을 탈피하여 창조적 다중의 사회로 변화시킬 수 있는 핵심 교육 체제의 대변혁을 이루어 낸다.

이러한 선진국형의 교육은 앞으로 개념적으로 더 다듬어지고 다양한 대안적 개념이 제시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국가 수준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과 절차 같은 것을 마련하는 것이다.

(교육학과 21회)

同窓會 消息

2003 送年會 개최

2003년도 송년회가 12월 12일(금) 오후 6시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컨벤션홀에서 개최되었다.

본회 총무이사인 李相珍 (化·18) 대영고 교장의 사회로 辛東一 (體·11) 회장의 인사, 禹寅燮 (國·4) 고문의 축사에 이어 曺昌燮 (獨·18) 학장의 사범대학의 운영 상황 설명 겸 인사가 있었다.

그리고 2003년 후반기에 동창회를 빛낸 자랑스런 동창에게 꽃다발을 증정하고 자랑스런 동문을 대표하여 鄭範謨 (敎·2) 동문의 인사가 있었다.

동창회를 빛낸 자랑스런 동문은 다음과 같다.

- 鄭範謨 (敎·2) 한림대학교 석좌교수
  ※제17회 仁村賞 (敎育部門) 수상
- 金善陽 (敎·10) 인하대학교 교육학과 대우교수
  ※제13회 天園敎育賞 (學術硏究部門) 수상
- 張誠源 (英·14) 새천년 민주당 국회의원
  (농림·해양수산 위)
- 鄭哲基 (敎·16) 새천년 민주당 국회의원
  (농림·해양수산 위)
- 嚴虎聲 (地·33)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무위)
- 沈在哲 (英·38) 한나라당 국회의원 (보건·복지 위)
  ※이상 4명은 동아일보,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국정감사 자문위원단이 2003년 국정감사에서 각 상임위원별 Best 3를 선정하였는 바 이에 선정된 국회의원임.
- 金洙亨 (國·18) 경기여자고등학교 교장
  ※제22회 世宗文化賞 (敎育部門) 수상
  제7회 東崇學術賞 (論文賞) 수상
- 柳聖瓊 (敎·39)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이화여대에서 3개년 동안 강의, 학생지도 활동이 우수한 교수를 학생들이 직접 평가하는 Best Professor로 선정됨.
- 金榮希 (國·40) MBC 문화방송 프로듀서
  ※제30회 韓國放送大賞 (프로듀서상) 수상

또한 본회 부회장이며 은곡공업고등학교 교장이고 산정호수 유스타운 회장인 李鍾郁 (物·21) 동문에게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이종욱 교장선생님은 우리 동창회에서 매년 개최하고 있는 동문 친목 수련대회 행사를 1986년부터 전적으로 지원하여 동문간 친목 도모에 크나큰 역할을 하고 있다.

끝으로 교가를 다함께 부른다음 李應百 (國·2) 고문의 건배 제의로 화기애애한 가운데 만찬이 있었다. 끝나고 돌아갈 때는 동문들이 찬조한 선물을 한아름 안고 돌아갔다.

송년회 행사에 찬조해 준 동문들은 다음과 같다.

- 權相澈 (京師演·4) 안양과학대학 이사장, 본회 고문 30만원
- 李應百 (國·2) 본회 고문 10만원
- 朴英子 (國·3) 세계시인시낭송문학연구회장 인삼바디크린저 120병
- 禹寅燮 (國·4) 본회 고문 10만원
- 李聖秀 (歷·5) 정책평가연구회 회장, 본회 고문 30만원
- 閔丙晙 (社·9) 한국광고주협회장, 본회 고문 마주앙 5 Box, 소주 10 Box
- 辛東一 (體·11) 동창회장 100만원
- 張誠源 (英·14) 국회의원, 본회 부회장 30만원
- 金華永 (敎·17) 삼풍주유소 사장 30만원
- 卞柱仙 (英·17) 대림성모병원 행정원장, 본회 부회장 20만원
- 林香淳 (數·17) 남산조세회계사무소, 본회 부회장 50만원
- 崔仙吉 (數·17) 서울도봉구청장, 본회 부회장 10만원
- 徐廷善 (化·17) 명지전문대학장, 본회 부회장 30만원
- 崔容準 (數·18) (주)천재교육 사장, 본회 부회장 300만원, 달력 120개, Diary 120개
- 李元雨 (敎·22) 한경대학교 총장, 본회 부회장 10만원
- 申 勳 (數·24) 금호건설 사장, 본회 부회장 50만원
- 安相洙 (體·28) 인천광역시장, 본회 부회장 50만원
- 金河俊 (生·30) 해외개발(주) 사장 비타민C 120개, 산타페 120개
-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박인수 교수 CD 120개

△ 축하 화환

- 張忠植 (歷·9) 단국대 이사장
- 林香淳 (數·17) 남산조세회계사무소, 본회 부회장

• 李揆澤 (敎・21) 국회의원, 본회 부회장
△ 축하 화분
• 林光洙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장
• 姜信主 (社・8) 삼신전자(주) 사장

同門親睦 修鍊大會 개최

본회는 지난 11월 15일(토)과 16일(일) 1박 2일간 산정호수 유스타운에서 동문 6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2003년 동문친목 수련대회를 개최하였다.

15일 오후 3시 신일고등학교 앞을 출발, 산정호수 유스타운에 도착하여 방 배정을 받고 오후 5시 40분부터 2층 세미나실에서 수련의 시간을 가졌다.

辛東一 동창회장의 인사에 이어 명지고등학교 朴性洙 (敎・21) 교장의 '후진국형의 교육에서 선진국형의 교육으로'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 중등교육 현장을 분석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여 참석자들로 하여금 깊은 감명과 많은 호응을 얻었다. (연수 내용 2~3쪽 게재)

연수가 끝난 후 인근 '명문갈비집'에서 화기애애한 가운데 저녁 식사를 마쳤다. 식사 후에는 유스타운 숙소에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오랫동안 친화의 시간을 가졌다.

16일에는 아침 일찍 한화콘도 온천장에서 목욕을 한 후 아침 식사를 하였다. 아침을 먹은 다음 일부 동문은 서울로 출발하였고 나머지는 고석정, 제2땅굴, 전망대, 월정리역, 노동당사 등을 견학하였으며 또 일부는 명성산을 등산하였다. 산정호수 유스타운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서울로 돌아와 내년에 다시 만나기로 하고 해산하였다.

집행부 會長團 및 理事 회의

지난 11월 4일 오후 5시 광화문 소재 첨성대에서 집행부 회장단 및 이사 연석회의를 개최하였다.

辛東一 (體・11) 회장의 인사에 이어 淸冠奬學會 설립과 동창회관건립 추진 상황에 대한 金千根 (敎・17) 상임부회장의 경과 보고가 있었다.

이어서 동문 친목 수련 대회와 2003년 송년의 밤에 대한 협의가 있었는데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동문 친목 수련 대회

11월 15일(토)과 16일 1박 2일에 걸쳐 산정호수 유스타운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15일 오후 3시에 신일고등학교 앞에서 출발하여 당일 오후 7시에 명지고등학교 朴性洙 (敎・21) 교장의 강연을 듣고 16일에는 전적지 등을 답사하고 귀경하기로 계획에 대해 협의를 하였다.

(2) 2003년 송년의 밤

12월 12일 (금) 오후 6시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개최하기로한 2003년 송년의 밤에 대한 협의를 하였다.

송년회에서 사회를 담당할 동문과 축사를 할 동문을 선정하고 2003년 후반기에 우리 동창회를 빛낸 자랑스런 동문을 선정하였으며 송년회 때 꽃다발을 증정하고 격려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1986년 이래 동문 친목 수련 대회를 지원한 李鍾郁(物・21) 동문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기로 하였다.

◇ 동창회관 건립기금 납입동문 ◇

(2003. 9. 25 ~2003. 12. 19)

• 졸업횟수 · 학과순
• 단위 : 원

이희호 (교3)	1,000,000	장종택 (생12)	100,000	김화영 (교17)	300,000	조정자 (가18)	50,000	강병욱 (국26)	50,000
박상일 (국3)	50,000	박찬구 (국13)	50,000	유천근 (교17)	1,000,000	박영민 (체19)	500,000	배호순 (교27)	100,000
우인섭 (국4)	1,000,000	송두석 (수14)	50,000	연대성 (영17)	100,000	이종재 (교21)	300,000	신일윤 (화27)	50,000
엄재후 (영4)	50,000	김동길 (화14)	500,000	윤용혁 (독17)	50,000	최명진 (가22)	100,000	윤재운 (교28)	100,000
김상준 (국5)	300,000	이현재 (화14)	100,000	사종식 (체17)	50,000	이만형 (체22)	50,000	오건주 (생33)	50,000
김영의 (사6)	50,000	나근형 (수15)	500,000	최현섭 (국18)	50,000	신정숙 (화24)	100,000	김진호 (수35)	100,000
• 정원식 (교7)	2,000,000	최만희 (수15)	50,000	홍종림 (국18)	50,000	신차균 (교25)	100,000	정명호 (체38)	50,000
고준식 (역8)	50,000	이규식 (체15)	50,000	강의정 (영18)	100,000	이종각 (교25)	100,000		
최태상 (역10)	5,000,000	김충회 (교16)	150,000	김조영 (지18)	500,000	한춘기 (교25)	50,000		
전상탁 (국11)	100,000	이동호 (교16)	50,000	조청자 (생18)	100,000	우상균 (영25)	100,000		

자랑스런 우리 동문

금속활자본 直指心經 찾은 在佛 書誌學者

- 朴炳善 (사회교육과 · 3) 박사 -

프랑스 파리 국립도서관은 귀중한 한국 유물 두 가지를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1377년 인쇄된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直指心體要節 · 직지심경)', 그리고 1866년 병인양요 때 약탈 당한 외규장각 의궤(儀軌)도서 191종 297권이다.

세계 문화계를 놀라게 하고 외교 문제까지 일으켰던 이 문화재들은 모두 한 사람에 의해 세상에 알려졌다. 재불 서지학자 박병선(朴炳善) 박사가 그 주인공.

그가 최근 한국을 방문했다. 지난 10월 자신이 파리에서 낸 신간 '한국 인쇄술의 역사' (Histoire de L' imprimerie Coreenne)의 영문판 (Korean printing · 집문당) 출간을 위해서다. 영문판도 자신이 직접 썼다.

"출판사가 '너무 어렵다'고 네 번이나 퇴짜를 놓는 바람에 3년이 걸렸습니다."

이 책은 '금속활자가 단순히 구텐베르크보다 앞섰다는 게 뭐가 중요하냐?'고 묻는 일부 사람들에 대한 답변이기도 하다. "생각해 보세요. 책 몇 권을 수입하거나 간행할 경우 필사는 부정확했고 목판은 보관이 힘들었습니다. 정확하고 빠르게 많은 책을 찍어 당시의 독서층을 폭넓게 했던 것이지요."

1928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을 나온 박 박사는 1955년 프랑스로 유학을 떠났다. 이때 그의 여권은 '6 · 25 후 민간인 여성'으로선 첫 번째로 발급된 것이었다고 한다. '직지심경'을 발견하게 된 것은 파리 소르본대학에서 종교학으로 석 · 박사 학위를 받고 파리 국립도서관에서 특별 보조원으로 근무하던 1972년의 일. 유네스코 후원으로 열린 세계 고서(古書) 전시회에 내놓을 한국 책이 마땅히 없어 서고를 뒤지다가 구석에서 먼지 묻은 작은 책 한 권을 찾아냈다. 그때까지 직원들은 중국 책으로 알고 있었다. '직지(直指)'라 쓰인 이 책이 세계 인쇄사(印刷史)를 고쳐 쓰게 할 줄은 그땐 몰랐다.

"책 뒤에 1377년에 주조된 금속활자로 찍었다는 말이 있었지만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직접 고증작업에 들어갔죠." 한국의 전문가들에게 문의했지만 '잘 모르겠다'는 답변뿐이었고, 중국 · 일본의 활자 전문 서적을 구해 밤새 공부해야 했다.

부엌에서 오븐으로 흙을 구워 직접 인쇄해보니 비슷하게 찍혀 한때 '흙으로 만든 활자는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다.

결국 글자 가장자리의 금속 흔적의 '쇠똥'을 발견해 금속활자본임을 입증하고 전시회에 내놓았다. 곧 이것이 '세계 유일본'임을 확인되자 학계는 발칵 뒤집어졌다.

외규장각 도서가 빛을 본 것은 10년에 걸친 노력의 결실이었다. 파리를 방문한 대학 시절 은사인 두계(斗係) 이병도(李丙燾) 선생이 "병인양요 때 없어진 책을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권유했고, 이후 그는 프랑스 내 해군 관련 기관을 이 잡듯 뒤져 1979년 자신이 근무하던 파리 국립도서관에서 이 책들을 찾아냈다.

"비밀을 누설했다'는 도서관측의 질책 때문에 그는 1980년 그곳을 그만둬야 했다. 이후 프랑스 왕궁보물교수관 연구원을 지낸 박 박사는 지금까지 파리 근교에서 독신으로 살고 있다.

내년 '한국 인쇄술의 역사'의 한국어판을 낼 예정인 그는 "곧 프랑스인을 대상으로 한 문고판 '한국의 역사'를 써 출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내용은 2003. 11월 22일 「朝鮮日報」에 게재 된 것을 轉載한 것임.

회비 납입 내역

(2003. 9. 18~2003. 12. 13)

회비 납부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장단 · 임원회비

변주선 (영17) 500,000
임항순 (수17) 500,000
최용준 (수18) 500,000
김조영 (지18) 500,000
박영민 (체19) 500,000
유서영 (체31) 400,000
이규택 (교21) 300,000
하봉옥 (사19) 300,000
이홍자 (국27) 200,000

이사회비

(교육)
이희호 (3) 50,000
정영권 (14) 100,000
유진은 (51) 50,000

(교행)
민재익 (9) 50,000
어명하 (16) 50,000
이영수 (18) 50,000

(국어)
왕문용 (23) 50,000
전정례 (26) 100,000

(영어)
김교준 (5) 50,000
정희수 (9) 50,000
윤태익 (18) 50,000

(사회)
신용래 (9) 50,000
홍정식 (9) 50,000
이영호 (13) 50,000

(역사)
임영별 (3) 50,000
양연학 (16) 50,000
양기석 (24) 50,000

(지리)
최안기 (32) 50,000

(수학)
김상일 (18) 50,000
백청호 (21) 50,000
백영묘 (51) 50,000

(화학)
최병호 (14) 50,000

(생물)
박수용 (8) 50,000
구성희 (12) 50,000
심봉석 (17) 50,000
김영국 (24) 50,000

(지학)
송무영 (22) 100,000

(체육)
고두원 (17) 50,000
정명호 (38) 100,000

일반회비

▶구일고등학교 (31명) 310,000
채희두 (지18)
오기세 (지33)
엄정호 (지49)
류재홍 (화26)
유주영 (화41)
박영덕 (수28)
유석룡 (수35)
권혁남 (국27)
김영수 (국27)
박혜경 (국34)
이선옥 (국40)
김한선 (국54)
이성수 (영31)
윤종기 (영35)
이인호 (영39)
정종호 (영41)
이신구 (체34)
김득오 (체36)
곽성일 (물36)
박윤희 (물40)
한종필 (사43)
박현희 (사43)
박유경 (사46)
유혜영 (사53)
송두록 (교34)
박주표 (지학38)
조미애 (지학42)
김인환 (독38)
김미정 (불41)
배미정 (생42)
박순철 (윤38)

▶서울고등학교 (40명) 800,000
김동운 (역21)
박기명 (역32)
황성호 (역36)
이종원 (역41)
윤동권 (국28)
구자송 (국32)
허공범 (국37)
장보성 (국39)
김현숙 (국41)
임양수 (국42)
김종대 (수33)
황세호 (수37)
박홍구 (체30)
손창호 (체31)
김용준 (체41)
황이실 (체41)
강희정 (영33)
김영희 (영36)
김학남 (영39)
김윤석 (영41)
조계숙 (영41)
송인석 (지학33)
김동진 (지학33)
유영선 (지학40)
장미옥 (지학42)
이성구 (물34)
남철주 (물37)
김은경 (물40)
이재윤 (독35)
이덕자 (독36)
이연희 (지39)
주석표 (지40)
이철희 (사44)
옥성일 (사44)
장영희 (생41)
오소라 (생42)
박만상 (불21)
김길수 (불39)
염기준 (화21)
김학윤 (윤36)

▶언주중학교 (4명) 80,000
송인호 (영24)
황인병 (체41)
오정훈 (체42)
한수진 (화53)

(경사)
정규두 (단강5) 20,000
박희용 (예46年) 20,000

(경어사)
이정순 (강6) 20,000
정환영 (강10) 20,000
김규영 (심5) 20,000
이종순 (심6) 20,000

(교육)
정일환 (3) 20,000
이태주 (6) 20,000
이정진 (34) 20,000

(교심)
김재은 (10) 20,000
위성소 (17) 20,000

(교행)
박영애 (10) 20,000

(국어)
이병우 (5) 20,000
이태준 (6) 20,000
김두응 (8) 20,000
박종대 (9) 20,000
이재만 (9) 20,000
김정환 (10) 20,000
김학수 (10) 20,000
박정남 (10) 20,000
김병국 (13) 20,000
우상주 (15) 20,000
최병지 (16) 20,000
유학영 (18) 20,000
김병욱 (26) 20,000
곽봉조 (28) 20,000
박상서 (29) 20,000
신미나 (48) 20,000

(영어)
전팔근 (5) 30,000
김동규 (9) 20,000
김병수 (17) 20,000
강익정 (18) 20,000
권태환 (20) 20,000
임한성 (29) 30,000

(독어)
박진길 (17) 20,000

(사회)
서태근 (9) 20,000
허덕수 (18) 30,000
김항원 (25) 20,000

변희주 (27) 20,000
김순덕 (29) 20,000

(역사)
김태갑 (11) 30,000
김해우 (22) 20,000

(지리)
이규원 (8) 10,000

(수학)
정종환 (15) 20,000
김정옥 (23) 20,000
김영국 (26) 20,000
임찬희 (35) 20,000

(물리)
강 욱 (9) 20,000
김용석 (11) 20,000
이석천 (11) 20,000
김학로 (13) 20,000
최인수 (13) 20,000
김동필 (14) 20,000
문찬호 (14) 20,000
전수남 (16) 20,000
유한욱 (35) 20,000
류재혁 (39) 20,000

(화학)
김우탁 (14) 20,000
최재근 (15) 20,000
김영자 (19) 20,000
김언주 (42) 20,000

(생물)
노두호 (8) 20,000
표재덕 (10) 20,000
박천식 (20) 20,000
김병연 (29) 20,000

(지학)
도재원 (25) 20,000
봉정모 (29) 20,000

(가정)
안영숙 (9) 20,000
이화숙 (14) 20,000
박문학 (17) 20,000
오광숙 (17) 20,000
조정자 (18) 20,000
임공희 (21) 20,000

(체육)
권광옥 (11) 20,000
이한규 (23) 20,000
김광빈 (28) 30,000
전항근 (34) 20,000

성명미상 20,000

❖ 年會費 納付 案內 ❖

우리 동창회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마음으로 年會費를 납부해 주시는 동문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회비는 1년에 한번만(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말까지) 내주시면 됩니다. 동창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비를 납부하실 때는 졸업학과와 횟수, 성명을 꼭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봉한 지로 용지 사용 (납부하신 동문에게는 지로용지를 동봉하지 않았음.)

은행지로번호 : 7521964
입금계좌번호 : 하나은행 (예금주 신동일) 221-910002-43405

〈회비 내역〉

· 會長	1,000,000 원 이상
· 副會長	500,000 원 이상
· 監事	300,000 원 이상
· 常任理事	300,000 원 이상
· 部長	300,000 원 이상
· 次長	200,000 원 이상
· 理事	50,000 원 이상
· 一般會員	20,000 원 이상

同門 動靜

近況/異動

• **張誠源** (英 · 14) 민주당 국회의원, 본회 부회장, 민주당 정책위의장에 선임(2003. 12. 21)
• **申 勳** (數 · 24) 금호건설 사장, 본회 부회장, 노동부와 산업 안전공단이 주관한 2003 안전경영 대상에서 종합건설부문 대상을 받고 상금을 불우 이웃돕기 성금으로 전달 (2003. 12. 12)
• **李惠星** (國 · 15) 한국청소년상담원장, 본회 부회장, '학업 중단 청소년 지원 방안'에 관한 세미나 개최 (2003. 12. 11)
• **鄭元植** (敎 · 7) 파라다이스 복지재단 이사장, 전 국무총리「人間의 性格」,「人間의 動機」 출판 기념회 (2003. 12. 8)
• **李援澤** (敎 · 21) 한나라당 국회의원, 본회 부회장, 러시아 극동국립대학에서 명예 교육학 박사 (2003. 10. 21), 충남대에서 명예 법학박사 (2003. 4. 23) 학위 수령 축하연을 가짐. (2003. 12. 2)
• **金明坤** (獨 · 29) 국립극장장, 일본 국제교류기금의 2003년 '문화인 초청프로그램' 초청자로 선정되어 일본 방문(2003. 11. 24~30)
• **金亭都** (國 · 17) 가톨릭대 교수, 한국문학비평가협회장, '탄생 100주년 한국작가 재조명'을 주제로 학술세미나 개최 (2003. 11. 28)
• **李榮德** (교 · 5) 문화시민운동중앙협의회장, 유치원 · 초등학생용 문화시민 교육지침서 「이것만은 꼭 지킵시다」 발간(2003. 11. 20)
• **全英雨** (국 · 10) 신성대 초빙교수, 고희 기념으로 출간한 저서 5권의 개정, 증보판 출판기념회(2003. 11. 20)
• **朱璞世** (物 · 16) 에바돌 동양선교회 담임목사, 15년만에 모국 방문하고 동창회 방문 (2003. 11. 19)
• **卞柱仙** (英 · 17) 한국아동단체협의장 회장, 본회 부회장, '아동인권의 현황과 실천 방안'이라는 주제로 제12회 어린이와 청소년의 생존 · 보호 · 발달을 위한 전국 대회 개최 (2003. 11. 17)
• **全萬吉** (歷 · 19) 신문공정경쟁위원회 위원장, 한국신문서비스(주) 사장 취임 (2003. 11. 3)
• **文龍鎬** (교 · 24) 서울대사대 교육학과 교수, 비영리 공익단체인 청소년 폭력 예방재단 제3대 이사장 취임(2003. 11. 13)
• **李光奎** (역 · 13) 서울대사회대 인류학과 명예교수, 재의동포재단 이사장 취임(2003. 11. 5)
• **李宗宰** (敎 · 21) 한국교육개발원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위원회 부의장으로 선출됨. (2003. 10. 29)
• **裵浩栴** (敎 · 27) 한국교육평가학회장, 서울여대 교수 '교육공동체 형성을 위한 학교 평가의 중장기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학술세미나 개최 (2003. 10. 17)
• **沈志鴻** (化 · 25) 단국대 정책경영대학원장, '남북 경제 협력의 평가와 발전 방향 모색'을 주제로 한독경상학회 창립 25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 개최 (2003. 10. 10)
• **金南祚** (國 · 4) 전 숙명여대 교수, 시인, 한글날 기념 국어교육과 학술제에서 특별 강연 (2003. 10. 9)
• **具聖會** (生 · 12) 서울보건대 학장, '국가 재해 재난 관리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재난 · 안전 심포지엄 개최 (2003. 10. 9)
• **李鎭洙** (體 · 20) 한양대 교수, 한국스포츠인류학회 초대 회장으로 선출됨. (2003. 10. 6)
• **金永男** (社 · 21) 삼성증권 전무, 교원캠퍼스 회장 취임 (2003. 10. 1)

慶弔事

• **尹雄堂** (數 · 21) 서울고 교장, 令息 결혼 (2003. 12. 20)
• **金秀雄** (學 · 17) 전 경동고 교장, 令愛 결혼 (2003. 12. 14)
• **金性植** (國 · 14) 한국교육삼락회 총연합회 사무총장, 令息 결혼 (2003. 11. 29)
• **金昌圭** (體 · 15) 국민대 교수, 본회 부회장, 令息 결혼 (2003. 11. 15)
• **梁 熙** (學 · 17) 노원고 교장, 令息 결혼 (2003. 11. 15)
• **李悌龍** (學 · 17) 공주교육대학교 총장, 令愛 결혼 (2003. 11. 15)
• **金昌哲** (化 · 18) 교육과학사 전무, 令愛 결혼 (2003. 11. 15)
• **姜永三** (社 · 16) 국민대 교수, 令息 결혼 (2003. 11. 9)
• **韓連洙** (國 · 17) 태릉중 교장, 令愛 결혼 (2003. 11. 8)
• **李聖求** (敎 · 23) 역삼중 교장, 令愛 결혼 (2003. 11. 8)
• **柳鎬永** (國 · 18) 분당고 교장, 令息 결혼 (2003. 11. 1)
• **韓明希** (敎 · 14) 동국대 교수, 令愛 결혼 (2003. 10. 25)
• **金忠會** (行 · 16) 충남대 교수, 令息 결혼 (2003. 10. 18)

• **河鳳求** (社 · 17) 전 영등포중 교장, 母親喪 (2003. 12. 12)
• **朴冠鎬** (化 · 4) 동국대 명예교수, 본회 고문, 別世 (2003. 12. 9)
• **黃彩皓** (化 · 18) 명성인도피아 부회장, 본회 부회장, 母親喪 (2003. 11. 29)
• **卞柱仙** (英 · 17) 세계걸스카우트 아태지역의장, 본회 부회장, 父親喪 (2003. 11. 21)
• **李容鼎** (國 · 2) 전 석관고 교사, 別世 (2003. 11. 14)
• **鄭明虎** (體 · 39) STA태권도 교육관 관장, 父親喪 (2003. 11. 2)
• **任京錫** (行 · 14) 전 양재고 교사, 父親喪 (2003. 10. 21)
• **崔來沃** (國 · 17) 한양대 교수, 母親喪 (2003. 10. 7)
• **吳金成** (歷 · 17) 서울대 인문대 교수, 母親喪 (2003. 10. 7)
• **鄭玩鎬** (生 · 16) 한국교원대 총장, 본회 부회장, 母親喪 (2003. 9. 25)

동창회관 건립 기금 모금

우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동창회 2,400 동문의 친목 도모의 요람이 되고 우수한 후배 교육자를 길러내는 장학 사업의 근간이 되는 동창회관을 건립하고자 회관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건립 부지만 마련되면 회관을 신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 동창회관 매각 대금과 그간 모금한 장학금으로는 회관 건립 부지 매입이 어려워 우리 동문들에게 협조를 요청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모금 단위는 1구좌당 5만원으로 성의껏 여러 구좌를 납부하신 수 있으며 납부하신 기금에 대하여는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납부하실 동문께서는 아래 계좌로 보내주시고 성명, 졸업학과, 졸업횟수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관 건립 모금 계좌>
하나은행 221-910082-72807 예금주 신동일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동창회장 신 동 일
회관건립추진위원회 위원장 최 태 상